2015년 03월 23일 (월) <더미래연구소> 조찬세미나
남재희장관의 이문현답(異問賢答) - '질문을 달리하면 답이 보인다'

사회자(박홍근) 요약

예, 우리 남재희 전 장관께서는 30분 정도에 걸쳐, 우리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재벌의 영향을 늘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당의 우경화·중도화하라고 하는 그런 주창이나 보도는 야당의 수구화를 재촉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표명해 주셨고, 이원집정부제와 관련된 개헌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향후 어떤 흐름으로 가야할지 특히, 당의 구심력, 리더십을 우리 당에서부터 먼저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당의 기풍을 바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최근에 계속 일고 있는 종북몰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필요한 태도나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다 현실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갖고 접근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참석자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한 30분 정도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질의 토론>

박홍근

고민을 하시는 사이에, 우선은 제게 하나 여쭈어 볼 텐데요. 최근 우리당이 정책 에스포도 잠깐 언급하셨지마는, 유능한 경제정당론을 당대표의 일정부터 시작해서, 계속 펼쳐가고 있거든요. 바깥에서 보시기에 이런 지금 현 새 지도부의 경제정책중심의 정책·정당 활동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남재희

좋은 이야기인데, 법률가가 옆에 계셔서 그렇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발전을 한다고 해서 이제 재벌을 한창 키워놓았잖아요. 재벌을 키워 놓으면은, 그때 발란스를 안 맞추어주고, 이제 일반적으로 재벌을 키워놓으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이걸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법치주의라는 말이죠. 뭐 커놓은 재벌을 강탈합니까? 뺏습니까? 그건 법률의 방어망을 딱 친단 말이죠. 손도 못 댄다고요, 손도 못 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을 위한 경제발전을 한다고 막 키워놓은 것이 현재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고요. 지금 재벌개혁이 어렵습니다. 물론 개혁을,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방법을 얘기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대법원 이하의 법률체계, 모든 법적 구조가 이제 기득권의 보호로 되니까. 고친다고 해도 약간 미시적인 개혁이죠.

그리고 우리 노동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요새 노동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노동개혁에 대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자세가 문제인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한쪽은 때려잡으려고 하는 자세인데, 거기서 미시적으로 미주알고주알 요고 요렇고, 요고 요렇고 해봤자 아무소용 없어요. 찍어 누르는 건데. 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노조 찍어 누르는 것 아닙니까. 계속, 노조 찍어 누르는 것이 주 정책입니다. 그 기본적인 스탠스, 기본적인 태도서부

터 문제 삼고 이야기 해야지,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제쳐놓고 미시적으로 노동법의 몇 조가 어떻고, 정규직의 노동조건의 유연화라든지, 그런 것을 거론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기본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문제논의 중요한데요. 상당히 그게 자칫하다 미시적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또, 미시적일 수밖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전체적인 국제적인 프레임 속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적인 프레임이 있으니까. 그런 미시적인 프레임에 빠질 위험도 있고,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가끔 가다가는 그걸 뛰어 넘는 좀 엉뚱한, 엉뚱해서 내가 사람 놀래키지 말라고 해 놓구선, 조금 이렇게 틀을 한 번 깨는 발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경제전문가가 아닌데,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틀이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벌의 틀에서부터.

최병모

제가 여기서 발언 할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장관님께서 법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변호사니까, 뭔가 보충을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은, 형식적 법률,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문제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재벌규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저는 현재 경기장이 기울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자체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재벌을 어떻게 규제하느냐, 지금 장관님께서는 미시적인 부분에서 해봐야, 그게 본질적인 규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 기능을 하면 저는 재벌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상속 문제, 간단히 얘기해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만 해도. 제대로 상속법을 적용해서 그 재벌 총수들을 규제하고 했으면요, 삼성이 저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희 씨가 뭐 저 휠체어 타고 앉아서 몇 번 법정 왔다갔다 하더니, 적당히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 상속 제대로 규제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제대로 안 내고 재벌 승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재벌승계가 되었기 때문에, 삼성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질서를 좌지우지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문제 같은 것도요, 지금 그 현대 쪽에서 비정규직법 판결 다 받고 나서도 정규직화 안합니다. 그것 사실은 공정거래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가만히 있습니다. 저거 처벌해야 합니다. 사실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죠. 적어도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으면 그것은 지키도록 하자. 이 전제를 세우고 나면, 재벌규제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가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대가 기아차 인수하고 할 때, 그거 독점규제법 위반입니다. 그런 거 다 눈감아서 그냥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예 두 손을 놓고, 아무 것도 안합니다. 아예 아무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만 들여다봐도 그래도 규제할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수단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벌이 기고만장하는 거 방법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에 와서는 이제 경제부총리께서 월급 올려줘야 경기가 살아난다, 그거 10년 전에 이

미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도 10년 전에 이미 얘기 했고. 실제로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은 벌써 15년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65%까지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48%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3-4년 취직하려고 애쓰다가 포기한 자발적 실업까지를 포함하면 60% 가까이 됩니다. 거의 오십 몇 프로 되지요.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해서 급여 차이가 옛날에는 70% 하다가, 지금은 50%입니다. 그 비정규직이 한 달에 아마도 지금 222만원,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정규직의 평균인 것 같은데. 그 거의 50%면 100만 원 정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800만 명이 100만 원 정도 못 받는다면 그것만 해도 8조원입니다. 그런 정도가 재벌들 소수 손으로 들어가니까 경기가 못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법률에는 규정이 있는데도, 정규직화 하는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률, 현재의 법률 가지고도 규제할 부분은, 본질적인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상당한 정도 있다. 그런데 국회도 신경 안 쓰고, 경찰, 검찰, 법원은 아예 재벌 손대면 큰 일 나는 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들, 요즘 검사들 하는 짓 잘 보셨겠습니다만, 재벌 손대면 나라 망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나라를 살리는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라고 생각합니다. 재벌들 손 안보기 때문에, 나라 망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검사들이 나라 망하는 주역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얘기가 조금 심했나 모르겠습니다.

김기식
당에서 맨날 당의 중도화가 늘 논쟁인데요, 그 아까 장관님께서 중도화·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그 얘기를 간단히만 언급하셔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것이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야당마저 보수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선거라는, 대선이라는, 총선 대선과 같은 선거 차원에서도, 집토기·산토끼 논쟁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는 더, 그거 얘기 하시면서, 저희 그 야당에 대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장관님 어쨌든 개혁적이시면서도 한편에서는 보수 쪽에 몸담고 계셨었기 때문에, 고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남재희
근데, 지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물으신게. 이 새정연의 발생사서부터 봐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발생적으로 볼 적에,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론으로는 이게 한민당입니다. 한민당이라는 게, 말하자면 해방 후에 아주 기득권 세력들, 친일파·지주세력 중심 아닙니까, 아니 애국자들도 있었지만 그중에 주류가 지주세력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한민당 힘을 빌어서 집권한 다음에 나중에 이놈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유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유당의 정강·정책이라는 게 엄청 진보적입니다. 자유당이. 이건 뭐 아주, 농민 노동자 위주의 정당으로 정강·정책도 만들고, 그런 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이, 아니 뜻은 다르게 했었습니다만, 대단히 진보적인 정당이었습니다. 한민당은 아주 울트라 보수적인 정당.

이것이 그럼 언제 바뀌었느냐. 나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씨 때 바뀌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건, 이렇게 하다 혼날라, 뭐 면은 영·호남 대립이 되는 겁니다, 발생사 적으로 보면은. 영남에는 지주가 별로 없습니다, 대지주가. 호남은 대지주가 엄청 납니다. 예를 들면, 언론계에 있었고, 뭐 요새 참전 16개국 운동하는 지갑종(유엔한국참전국협회장)이라고 있어요. 그 사

람들 전남인데. 오만석을 했다고 합니다. 오만석. 오만석. 경주 최부자가 제일 부자인데, 그죠, 일종의, 막 유명한 사람, 만석입니다. 경주 최부자는. 그러니까 영남에는 대지주가 거의 없고, 자영농가가 많았는데, 호남에는 대지주가 많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소작인들이 쫙 깔렸다는 이야기지요. 거기다가, 박정희 정권 때 공장을, 뭐 입지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뭐 입지조건만은 아니죠, 영남에만 콱 세워 놓으니까, 부가 그쪽으로만 모이고, 호남은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소작인이 쫙 갈렸다는. 그러니까, 약간 반항적이 되고, 비판적이고 되고 이런 기질이 생기는 거죠. 김대중 씨의 지지 세력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오면서, 또 다른 변질이 생기죠.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순진하다고 봅니다, 나도 뭐 국회에서 같이 있어봤지만. 이 양반이 아주 순정파지, 그러니까. 뭐, 그 사람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뭐 하지만, 뭐 자기 조금 아는 거 가지고는 뭐 자기 순정을 다 바치는 거죠. 그렇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발생사적으로 보면은, 이 새정치연합이 기본적으로 혼성부대죠, 그렇죠, 혼성부대죠. 그래서, 당내에 잡다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고.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시대의 개혁적인 칼라가 상당히 강화 된 건데, 그렇지만 바탕은 또 안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에 이제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의 정당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성 부대죠, 연합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준연합세력이라고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 나가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류 언론들이 아마 언론학자들이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류 언론들이 전부 기득권 층, 부르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광고주라고 할까요, 광고주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 일종의 진보개혁이나 노동계층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입니다. 거기서, 계속 이제 거기서 여론 공세가 들어오니까, 새정치연합에 있는데도 그런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개혁을 조금 해나가려는 사람들이 계속 비판을 받고, 거기서 수구적으로 나가려는 세력들이 지원을 받는, 그런 형국으로 가끔 나타나는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게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본질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연합세력이라는 점에서, 계속 갈등을 겪어 가면서, 타협 해 가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윤임순

제가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2012년 대선 평가하시면서 반반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12년 대선이 반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때를 회고해 보면, 보수와 진보가 각각 총결집을 했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수로 본다면은 이제 기존세력과 또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총결집을 했는데, 이제 그 요소가 빠지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야권 쪽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연합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때 야권도 총결집을 한 거거든요, 총연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사이에 여러 종북몰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내부에 균열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도 어떤 연합적인 성격을 지금 갖고 있다. 뭐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시민사회든 진보 정당이든 여러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 때보다 훨씬 더 균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2017년 정권 교체를 앞두고,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총 연대와 연합,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이렇게 그 2012년 상황보다는 이쪽의 결집이 더, 이 흐름으로 갈 거다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어떤 그 리더십에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그 시대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래도 어떤 근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합니다.

은수미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대상황은 맞는다고 보는데요. 리더십 측면에 있어서 아까 박성민 대표 칼럼을 거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박성민 대표 칼럼의 핵심은 뭐였느냐면, 강한 정치인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으나, 좋은 정치인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가, 핵심이었고, 사실은 야당의 현재 리더십에 있어서, 특히 문재인 대표에 있어서, 강한 정치인이 못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남인순 의원님 이야기와 결합해서, 시대상황은, 제 판단은, 야당에게 유리하지만, 사실은 리더십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야권연대, 야권을 전반적으로 결합시키거나, 조금 더 서민적인 가치를 분명히 그런 강한 리더십에 측면에서는 약한 게 아니냐, 2017년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 종합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재희
이 노동 운동이 이제 약화된 것은 사실인데요. 약화된 건은 사실인데. 그 노동운동은 약화 되었지만, 그 바탕의 통계수치는 지금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거죠. 그죠? 노동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정규직문제, 청년실업문제이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이렇게 해서 정치세력화로 급변할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저변은 상당히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선거결과로 나타난 것이 10%이상 아닙니까. 그 노동·진보세력이. 옛날에 민주노동당에서부터 나타난 게 10% 선 이상인데. 그러면 보수언론들이 계속 기회 있을 때 마다 쓰는 것이 뭐냐면 종북몰이 논리를 가지고, 새정치연합을 깨야한다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숙주노릇하지 말아라. 숙주공세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한 종북몰이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안하면은 상당히 승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 방대한 세력 가지고, 연합, 그리고 또 야당이라는 게 연합을 하는 거지. 아이, 전 세계적으로 야당이 연합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딱 조지는 것이 그 종북세력의 숙주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그 숙주 노릇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런 수구 언론들 논법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겨 나가야죠. 연합을 안 하고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방대한 세력하고. 그걸 연합 안하고서는 스스로 자기 손을 묶는 것이죠. 아니,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 의원 말씀은 지도자론 아닙니까. 지도자론이 뭐 아이, 우쭐대고 깡패노릇 했다고 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안의 힘이지, 안의 정신력이지 밖에 우쭐 댄다고 강한 리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은 상당히 사람이 양순해 보이는데, 야 저 양순해 보이니까, 저 사람 뭐 강한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이죠. 그 뭐, 강한 리더라는 것은 정신력이니까. 강한 리더는 정신력이니까, 두고 보면 아는데. 아직은 그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에 한 번 세월호 때 한 열흘 단식 하셨죠. 한 열흘 쯤 했죠? 단식. 아이거 가관이다. 열흘씩이나 단식을 하고. 김영삼 씨가 23일인가 했어요, 단식을. 아마 그거 기

록일 겁니다. 김영삼 씨 단식. 그래서 이제 23일인가 단식 해 가지고, 아주 강한 면을 보여줬다고, 김영삼 씨가. 거기다 농담을 하나 또 추가하면, 김상일 씨라고 또 있어요, 야당에. 그 사람도 단식을 해, 다른 일로. 이거 농담입니다. 내가 대선배의 기록을 깨뜨릴 수가 없어서, 김영삼 씨보다 하루 적게 단식했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문재인 씨가 열흘 동안 단식한 거, 그거 그래도, 뭐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앞으로 봐야죠. 앞으로 봐야 하는데, 다만 그거죠. 아까 한겨레 박성민 말씀하셨죠. 그거는, 내면적인 힘으로 봐야할 겁니다. 외면적으로 우쭐대는 거 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내면적으로 어떠한 그 어려운 문제가 부닥쳤을 때, 어떠한 결단력을 보여주느냐. 김영삼 씨가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교과서가 된다고 봐요. 왜냐면, 아휴, 나는 김영삼 씨 관찰을 좀 해봤는데, 이 사람은 뭐 머리도 나쁘고 말이죠, 술이나 먹고 오입이나 하고 말이죠. 지도자로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평소에 보기에. 이야, 그런데 여기에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그 찬스만 잡으면 그냥 물고 늘어진다고, 쌈꾼이라, 쌈닭이야 쌈닭. 그 순발력, 절묘한 정치력 순간을 탁 잡아서 싸움을 하는데, 그리고 대개 이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이야, 이게 말이야, 그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결단력이죠. 대단하다 싶은데. DJ는 꾸준하죠. 그렇게 탁 순발력 있게 하는 게 아니죠. DJ는 꾸준하게 투쟁해온 건데. 김영삼 씨는 꾸준한 게 아니고 탁 순발력 있게 하는데. 여하간 내부의 힘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아까 그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장관님께서 일본 이야기 하시면서, 미국하고 재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팩터라고, 똑같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제가 이렇게 정치를 좀 해보니까, 재벌이 부자라고 이야기하면, 정치인은 부자가 필요하고 부자는 정치인을 다룰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한국 정치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미국은 한국 정치를 다룰 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패러다임을 깨지 않는 한, 한국사회가 뭔가 변하기가 힘든데. 우선 미국문제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하고 안보프레임, 아마 저는 종북몰이의 더 기저로 들어간다면, 한미동맹과 그 안보프레임이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지난 대선도 그렇고 최근의 논쟁을 보면은, 결국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변화시키려는 노력 보다는, 야당조차도 내가 더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를 더 잘 할 수 있어, 내가 더 안보를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안보 프레임을 평화 프레임으로 바꾸어 내거나, 한미동맹을 과거의 군사동맹에서 조금 다른 동맹으로. 이 경제협력이나, 물론 동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화해내지 못한다면, 과연 이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의 질서에서, 바꾸어 낼 수 있을까, 야당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까. 그런 문제와 대해서, 현재 종북몰이를 포함해서, 이 평화 프레임과 안보 프레임 문제가 같이 가야하는 게 아닐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 재벌 문제도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프레임이라고 해야 할지, 기존의 박정희 정부의 계속 성장 위주의 우리가, 결국 우리도 만들어낸 게, 소득이 이제 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론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결국 불가피하게 성장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성장을 이야기 하는데. 최근에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 교수가 여러 번 미국에서도 나오는 게, 기존의 GDP 방식을 조금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장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장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성장의 문제를 달리 보지 않는 한, 환경이라든지 노동, 복지 이런 문제를 포괄하는 그런 새로운 성장의 어떤 준거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계속 저는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정치 선진화라는 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된다면, 아마 보수언론이나 보수적 입장에서, 누가 정권을 잡아도 뭐 별 문제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게 가장 행복한 게 아닐까. 그게 사실 상 보수담합론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재희

제가 이야기 안했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미국 문제하고 그 안보문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섣불리 간단하게 이야기 할 수 없죠.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미국이 아주 유치한 이야기로, 미국이 천사냐,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이 악마냐,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도 잘못하는 거 있고 잘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럼 미국이 그렇고 그런 나라도,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대한반도, 대동북아 정책에서도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그런 시각이 지금 없죠. 미국은 무조건 잘한다, 이런 시각 아닙니까, 지금. 그럼 좀 달리 가면은, 시간이 걸리는 얘기지만, 왜 이스라엘 핵무기는 아무 소리 않고, 이란의 핵개발만 가지고 거기서 야단이냐. 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란 핵개발 한다면, 가서 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벌써 핵무기 다 엄청 갖추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편견이죠. 이스라엘은 괜찮고, 이란은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동북아에서도 문제가 조금 달라진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러 번 썼는데, 그럴 때 말을 조심해야죠. 북한이 실패한 나라다, 체제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패한 체제입니다, 이건 실패했는데. 그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깔고 뭉갤 수가 있느냐. 그리고 통일대박, 우리가 흡수통일 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중국이 옛날의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국이 어마어마한 군대 역량을 투입하고, 모택동의 아들까지 와서 죽고 했는데, 일종의 방어선이죠, 완충지대인데, 아이, 그걸 포기하고 북한에 미군사기지가 오는 것을, 중국이 바라지 않을 거에요. 중국의 경제력이로 약간은 도와줘도, 제가 어디다 그랬어요. 동사성 된다고 그랬어요, 동사성. 옛날 만주에, 동삼성이 이제 여기에. 동사성을 할 지언즉, 북한이 짜부라 들게 놔두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통일대박이 없는 거지, 흡수통일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팩터가 한반도에 없다면 또 모르죠. 중국이 왜 미국 군사기지화 되는 통일을 용납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팽팽한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남북관계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이 달라져야 하고, 미국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김정일이 노무현 대통령이 만난 대화록이 쭉 나왔었죠. 아니 나는, 다 찬성하는 건 아닌데, 이야 노무현 씨가 진지하기는 하드만. 정말 민족의 성원으로서, 민족의 입장에서 아주 진심을 토로하면서 대화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그런 진정어린 대화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한 것도 없어요. 양보한 것도 없고, 자기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진심을 이야기 한 거지, 거기에 나가서. 나는 오히려 감동을 거기서 받았는데, 대화록에서. 그런 자세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방법은 조금 서툴렀을지도 몰라도, 그 진심은 알아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북관계, 대미관계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뭐 게이츠(Robert Michael Gates)인가, 그 전 미국국방장관 회고록에서 그랬죠, 크레이지(Crazy). 노무현 대통령이 크레이지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 크레이지 가이라고. 아니, 미국인 눈에는 크레이지 가이로 보일지 모르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진심어린 그런 민족애를 느꼈다고, 그 대화에서. 그런 자세를 조금 세련되게, 국제관계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아주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닙니까, 국제관계는. 그냥 가랑비가 아니라, 이슬비 정도로, 그냥, 이슬 내리듯이, 안개 젖듯이, 서서히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 나가는. 따라서 동북아질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꾸어나가느냐, 그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대북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 이것이 그동안 새민련의 징표였죠. 약하게나마 보여 왔어요. 보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랑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 애들이 또 크레이지라는 소리 할지도 모르지만. 할 수 없죠, 뭐 그건 각오해야죠. 그런데 미국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SOB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한테 우리가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우리도 바꾸어 나가는 것을 바란다, 요런 거죠. 부분적으로. 그런 노력이, 이 새정연의 정치파트에서, 아까 저는 말을 못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 안보외교 정책이죠, 중요한 파트로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빛을 발한다면, 경제정책하고 막상막하의 이런 비중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아까 이야기는 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김성주

오늘 보니까, 이게 이문현답이에요. 질문을 달리하면 답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남재희 장관님 하신, 기본 핵심 취지에 동감을 해서, 질문을 근데 조금 달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힘, 경제적으로 소위 재벌로 표현되는 강력한 경제 권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 지배수단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종북론, 또 하나가 성장론, 경제 성장론인데. 이게 뭐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우리 소위 야당, 새정치연합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운다, 이거는 대단히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싸워서 만년 지는 야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치를 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두 팀의 전력은 우리가 절대 열세지만, 이거를 구경하는 관객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현재 이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내놓고 놀랍게 하지 말고 그냥 쭉 가라, 이런 말씀인데. 저는 항상 소수파입니다. 쫓는 2등을 합니다. 판을 뒤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판을 흔들어서 1등을 이기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그거를 잘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희

여하간 놀래키면 안되요. 아이 국민을 여자한테 남자가 여자한테 연애 걸 적에 부드럽게 하듯이, 꼭 국민을 타이르고 유도해나가야지, 놀래키면 안되요. 그러다 뭐 없어요. 놀래키면.

최병모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종북몰이하고 또 한 가지 재벌, 이제 성장론 두 가지 이야기 했는데. 종북몰이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면대응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정면대응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제 생각은 사실은 중도우파로 갈 게 아니라, 새정연이 좀 더 좌파 쪽으로 가서 실제로 그것을 끌어안는 게 정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즉,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지금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사민주의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65%. 이전에는 조금 낮았다가 이번 년도에 사민주의로 가는 게 6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무상급식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은 아니죠. 세금 내고 사실은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잘못되게 형성되는 바람에, 여당은 계속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새정연 쪽이 확실하게 받아들이면서, 좌파쪽으로 가는게, 조금 더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재희

최 선생님 말씀이 제 발상하고 조금 다른데. 우선 먼저, 사민주의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사민주의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다 썼는데, 진보당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봉암 씨가 왜 주책없이 사회민주주의를 집어넣었느냐 이겁니다, 정강에. 이때,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소셜 데모크라시(Social Democracy),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조봉암씨가. 그게 조봉암 씨가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동경제국대학 정치과출신인 이동화 씨가 일본에서 동경제국대학에서 배워 온 첨단 정치학, 사회민주주의에 경도되어 가지고, 진보당 정강에 집어넣자, 해가지고 사회민주주의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사회민주주의자라는 소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 그대로 풀이를 해서, 사회적 민주주의, 그런데 그것이 하등 도움이 안 되었다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적 민주주의를 알 사람도 없고, 오히려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니까, 뭐 공산당하고 사촌인가? 오히려 그런 또 역공세, 비슷한 분위기만 되었죠. 오히려 정책으로 그냥, 일상적인 정책, 가령, 그 때 같으면 진보당 같으면, 민족경제, 대동 사회, 평화통일 등 그런 구체적인 정책만 이야기 했으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이런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지금 좌 선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음은 동행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동행안합니다. 왜 현실은 동행 안 하느냐?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좌 선회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하니까, 저로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것, 특히, 지난 대선에, 아까 얘기 한 것처럼, 지난 대선에 새정연의 정책을 집약적으로 한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고, 체계인데 그것을 서서히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좌 선회를 자칫 잘못하다가 국민이 못 따라 오게 되면 오히려 표를 잃는 게 아닌가. 아니, 심정적으로는 맞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오히려 드레스틱한(drastic), 대담한 계획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대담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과 표는 별개에요. 그래서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선거 전략으로서는 정말 서서한 개선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요렇게 조금 상충되는 말씀을 드립니다.